法은 자신 안에 있어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⑱ 隨處作主 立處皆眞

임제가 대중에게 말했다.

"여러분, 불법 자체는 애써 공부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저 평소에 아무 일이 없으면 되는 것이다. 똥 누고 오줌 누며, 옷 입고 밥 먹으며, 피곤할 땐 쉬면 되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비웃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잘 알 것이니라. 옛사람이 이르기를 '밖으로 향하여 공부를 하는 사람은 모두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 하였느니라. 그대들이 어디를 가나 주인이 되면 자기가 있는 그곳이 진리가 있는 곳이다. 어떤 경계가 온다 해도 이것을 바꿔 놓을 수가 없는 것이다. 비록 묵은 습기와 오무간지옥의 죄업이 있어도 저절로 해탈의 큰 바다가 될 것이니라."

임제는 어느 날 또 특유의 법문을 계속한다. 부처님 법은 애써 공들여 하는 공부가 아니라 한다. 몸과 목숨까지 돌보지 않고 일로 정진해서 공부해야 하거늘 이 무슨 말인가. 깨달음 자체는 애써 노력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자기에게 그대로 있는 것이란 말이다. 평소에 아무 일거리가 없는 텅텅 비고 아무런 부담이 없고 구속이 없는 것 그것이 부처님 법이라는 말이다. 말하자면 법이 무엇인가 법 그 자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런 말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 못하고 깨달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법성게의 '증득한 지혜라야 알 바요, 그렇지 못하면 알 수 없다(證智所知非餘境)'는 말과 같다. 화장실에 드나들며 밥 먹고 옷 입는 것이 부처님 법이니 결국 법이 나 자신 안에 있지 밖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예로부터 가장 쉬운 말로 도인의 가풍(家風)을 나타낸 말에 '목마르면 물 마시고 피곤하면 잠잔다(渴卽飮水困卽睡)' 라고 하였다. 이는 본래 있는 지극히 생리적 현상으로 마음 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일이다.

이 장에 와서 또 중요한 법구(法句)가 나온다. '어디를 가든지 주인이 되라 그러면 그곳이 존재의 진실이다.(隨處作主 立處皆眞)' 매우 매력 있는 말이다. 이것만 바로 알아 챙기면 설사 지옥에 가더라도 큰 해탈의 바다가 된다 하였다.

중국 당나라 때 나찬(懶瓚) 스님이 있었다. 어느 산중에 있을 적의 일화가 하나 전해진다. 나찬외우(懶瓚煨芋)라고 선가에도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벽암록〉 34칙에 소개되어 있다. 덕종이 국사로 모실 스님을 찾고 있던 중 나찬 스님의 명성을 듣고 사신을 보내 스님을 궁중으로 모셔오게 했다. 왕명을 받은 사신이 형산에 있던 나찬 스님을 찾아갔다.

그들이 절 안으로 들어갔을 때 초라한 행색을 한 스님 한 분이 마당 가의 양지쪽에서 혼자 앉아 쇠똥불에 토란을 구워 먹고 있었다. 입가에 시커먼 검정이 묻어 있고 코를 훌쩍거리고 있었다. 사신들은 이 스님이 국사로 모셔오라는 스님일 줄은 알지 못하고 명찬 스님을 모시러 왔노라 말하면서 스님을 뵙게 해 달라 하였다. 나찬 스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자 구운 토란을 먹던 스님이 손가락으로 자기 가슴을 가리켰다. 자기가 나찬이라는 뜻이었다.

신하들은 찾아온 사유를 말하고 스님을 모시고 궁중으로 가야 하니 출발할 채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님은 들은 둥 만 둥 토란 먹는 데만 열중하였다. 천자의 명을 받드는 예를 갖추라는 데도 반응이 없었다. 입가가 시커멓고 코가 입술까지 흘러내리는 것을 본 신하가 입가를 좀 닦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내가 공부한 게 뭐가 있다고 속인들을 위하여 콧물까지 닦겠는가?"하고 일어설 줄을 몰랐다. 사신은 자기들이 스님을 위해 도와줄 일이 없느냐고 다시 물었다. 궁중으로 가는 채비를 하는 데 도와줄 일이 없느냐고 물은 것이었다.

이 때 나찬이 한 말은 "조금 비켜 서주시오. 햇빛을 가리지 마시오." 였다. 추운 날씨에 사신들이 햇빛을 막고 서 있었던 모양이다. 나찬은 끝내 국왕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덕종은 나찬을 더욱 흠모하였다 한다. '햇빛을 가리지 말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Diogenes, ?~BC324)가 한 말과 우연히 일치되었다 하여 후세 사람이 나찬을 동양의 디오게네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렇듯 선은 경계를 의식하거나 끌려가지 않는 기백을 높이 산다. 이를 주체적 자아확립이라고 하고 임제도 수도인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教 배운 후에 禪에 들어간다



세상 속 경전읽기

⑱ 수행의 이론과 실천법

〈소실육문(少室六門)〉 제3문 이종입(二種入)은 이입사행론(二入四行論) 또는 대승입도사행관(大乘入道四行觀)이라고도 불린다. 짧지만 보리달마대사의 수행의 이론과 실천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논서이다.

'도(道)에 이르는 길' 곧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법을 요약하면 이입[理入, 이론]과 행입[行入, 실천법]이 있다.

'이입(이론)'은 교[敎, 경론(經論)]를 빌어 모든 중생의 참성품[진성(眞性), 본체, 진여]이 동일한 하나임을 믿고, 망상을 걷어내고 참으로 돌아가며[사망귀진(捨妄歸眞)], 자타성범[自他聖凡, 나와 너 그리고 성인과 범부]이 하나인 부동지(不動地)에 머물되, 교(문자로 된 경론)마저 버리고 그 참뜻을 취하는 것[사교입선(捨敎入禪)]이다.

여기에서 사교입선(捨敎入禪)을 흔히 '교(경론)를 버리고 선에 들어간다.' 고 번역한다. 이러한 번역은 자칫 교를 비하하고 선을 높이는 어리석음을 범하기 쉽다. 청화 스님께서는 사교입선을 '교를 배운 후에 선에 들어간다' 고 번역하셨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과 음식을 먹고 마신다. 그러면 몸은 신진대사[新陳代謝]를 통해, 생명의 유지를 위한 영양분을 섭취하고 필요 없는 물질은 걸러서 소변과 대변으로 배출해 낸다. 여기에서 물과 음식의 섭취, 신진대사, 소대변의 배출 중에 어느 하나라도 생략하거나 빠지면 생명유지가 되지 않는다. '어차피 대소변으로 배출될 것이니 나는 물과 음식을 섭취하지 않겠다' 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버린다' 에는 반드시 '취해서 가진다' 라는 것이 선행한다. 가진 것은 버릴 수 있으나, 가지지 않은 것은 버릴 수 없다. '교를 버리고 선에 들어간다' 를 생명유지 기전과 비교하여 곰곰이 살펴보면, 우선 교를 취하고 배워서 정신고양에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고, 교의 문자를 버리고 정신고양의 영양분을 이용해 선에 들어가는 것이다. '어차피 버릴 문자이니, 나는 교를 취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차피 대소변으로 버릴 것이니 나는 물과 음식을 취하지 않겠다' 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

행입(실천법)은 '보원행(報冤行)', '수연행(隨緣行)', '무소구행(無所求行)', '칭법행(稱法行)' 의 4종으로 대별된다.

보원행이란 역경을 맞았을 때, 이는 과거생의 원증(怨憎)의 과보임을 알고, 원망심 없이 수도의 밑거름으로 삼는 것이다. 수연행이란 좋은 일이 생기면 과거생에 지은 인연의 과보로 생긴 것이니 곧 인연 따라 스러질 것을 알아, 기쁨에 들뜨지 않는 것이다.

일체가 항상 변해 실체가 없으니, 없는 실체를 갈구(渴求)하고 잡으려하는 것이 고통인 줄 깨달아, '갈구함이 없이 평안한 것' 을 무소구행이라 한다.

칭법행이란 '모든 현상이 비어있고 본래성품이 맑음' 을 철저히 알아, 6바라밀(波羅蜜)을 닦되, 닦는다는 모습을 내지 않는 것이다.

행입의 4행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연기(緣起)이고, 연기즉공[緣起卽空, 연기이므로 공(空)]의 공지(空智)에 투철한 삶을 사는 것이다.

붓다께서, "연기를 내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연기를 발견한 것이다"고 하셨다. 사제법(四諦法)으로 집인고과(集因苦果)의 유전연기(流轉緣起)와 도인멸과(道因滅果)의 환멸연기(還滅緣起)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주신 붓다께 사무치게 감사드린다.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㊹ 닦음의 길 4

삼학, 수행인가 자성인가?
〈三學〉 〈自性〉

지난해 고불총림(古佛叢林) 백양사가 총림에서 해제되면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오랫동안 총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를 계기로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총림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총림이란 본래 승려들이 모여서 수행하는 공간을 가리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참선을 수행하는 선원(禪院)과 경전 교육기관인 강원(講院)이나 승가대학, 계율을 공부하는 율원(律院) 등을 갖춘 사찰을 의미한다. 〈총림법〉에는 선원과 강원, 율원 외에도 염불원(念佛院)을 갖추고 정진하는 종합수행도량이라고 규정되어있다. 현재 해인사와 통도사, 송광사 등 큰 사찰들이 총림으로 지정되어 있다.

총림의 구성은 불교의 종합적 수행체계인 계정혜(戒定慧) 삼학(三學)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계학(율원)은 계율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고, 정학(선원)은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는 수행이며, 혜학(강원)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공부다. 계율과 선정, 지혜를 단계적으로 닦는 삼학은 불교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수행법이다.

삼학의 단계적인 공부법은 '계의 그릇이 깨끗해야 선정의 물이 고이고, 선정의 물이 고여야 지혜의 달이 비친다.' 는 말에서도 드러난다.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안에 아무리 맑은 물을 담는다고 해도 더러울 수밖에 없다. 계율을 지키는 것이 선정과 지혜 공부의 바탕이 되는 이유다. 그리고 그릇에 담긴 물이 출렁임이 없어야 그 안의 사물이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처럼, 선정을 통해 마음이 고요해야 지혜의 달이 비춰서 대상을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

근본불교의 실천체계인 팔정도(八正道) 또한 삼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먼저 계학에 속하는 실천으로 말이나 행위를 바르게 하는 정어(正語)와 정업(正業), 정명(正命)이 있다. 그리고 바른 수행을 강조하는 정정진(正精進)과 정념(正念), 정정(正定) 공부는 정학에 포함되며, 바르게 보고 사유하는 정견(正見)과 정사(正思)는 혜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마디로 삼학은 다양한 과자들이 들어있는 종합선물세트에 비유할 수 있다. 불교의 모든 수행을 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선불교에 이르게 되면 삼학이 새롭게 해석된다. 계율을 통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선정 공부로 산란한 마음을 고요하게 함으로써 지혜를 증진시키는 단계적인 이해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 건너온 선(禪)을 중국적인 색채로 바꿔놓은 6조 혜능(慧能)은 삼학을 우리의 본래 마음인 자성(自性)으로 압축하여 해석한다. 즉, 우리의 마음에 본래 그릇됨이 없는 것(心地無非)이 자성계(自性戒)이며, 산란함이 없는 것(心地無亂)이 자성정(自性定)이라는 것이다. 자성혜(自性慧) 또한 본래 마음에 어리석음(心地無痴)이 없는 것이다. 선불교에서는 이를 자성삼학(自性三學)이라 하는데, 그릇됨과 산란함, 어리석음을 대치하는 수상삼학(隨相三學)과 대비되는 말이다. 선에서 가장 중시하는 견성(見性)은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에 본래 그릇됨과 산란함, 어리석음이 없다는 실상을 깨치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자성삼학과 수상삼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근기가 뛰어난 사람은 자성삼학을, 그렇지 못한 사람은 수상삼학을 닦는다는 것이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따른 수준별 학습을 채택한 셈이다. 선불교의 시선에서 보면 자성삼학은 즉각적인 깨침을 강조하는 혜능의 돈문(頓門)의 전통이며, 수상삼학은 점차적이고 단계적인 닦음을 중시하는 신수(神秀)의 점문(漸門)에 해당된다.

삼학을 종합적 수행체계로 인식한 근본불교와 이를 자성(自性)으로 압축한 선불교의 해석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양성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시대와 문화, 철학의 차이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각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택해서 수행의 기초로 삼으면 되는 일이다. 근기가 뛰어나지 않아서 계율을 지키고 선정과 지혜를 닦는 것은 아니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